

# [기자회견 첨부자료]

2016. 11. 17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Telephone 02-739-7285 · Facsimile 02-735-9400 · http://media.nodo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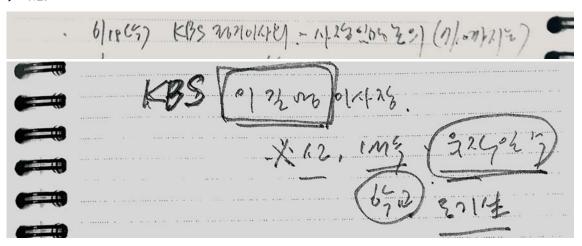
# 〈첨부 자료〉 청와대의 KBS 인사개입과 보도통제를 고발한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KBS의 모든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KBS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지시 등 꼼꼼하게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적혀져 있다.

다음은 김 수석이 남긴 비망록 가운데 KBS관련 부분을 TV조선의 자료 도움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메모 날짜순)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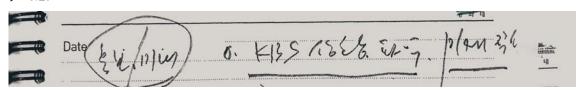
## ▶ 6.15



6/18(수) KBS정기이사회 - 사장 임명 논의 (7/10까지는)
KBS 이길영 이사장
\* 선, 배수(?), 움직일 수
학교 동기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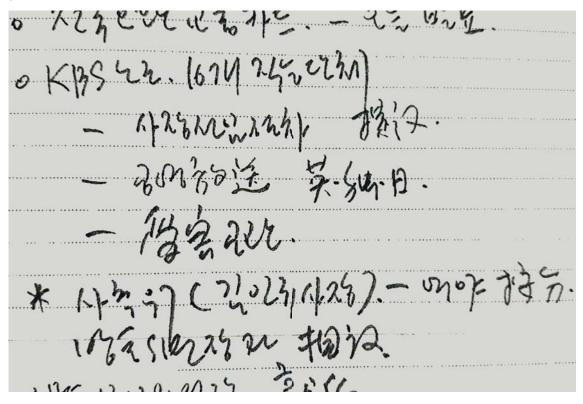
=> 2014년 6월 10일 청와대가 길환영 사장 해임을 결정. 이후 이사회는 새로운 사장 선임의 의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14년 8월 27일 이길영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고, 29일 방통위가 이인호 씨를 이사장으로 내정함.

## ▶ 6.16



=> 길환영 사퇴 이후 KBS 사장 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 및 미래전략수석에게 지시한 의혹

#### ▶ 6.17



# KBS 노조 16개 직능단체

- 사장선임절차 제의
- 공영방송 영.독.일
- 수용 곤라
- \* 사추위(김인규사장) 여야 안분

# 방통위원장과 상의

=>언론노조 KBS본부가 6.16 기자협회, PD협회, 경영협회 등 사내 16개 단체와 연대하여 새로운 사장 선임 시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청와대가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한 뒤 방통위원장과 의논토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됨. 새 사장 선임시 사추위와 특별다수 제는 이후 6월30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당추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음.

'\*사추위(김인규 사장)~~~' 부분은 현재까지 추정 불가능

#### ▶ 6.19

KBS 이사회 개최 - 법(?) 47. 7/10까지 6.23-30 공모

==> 새롭게 선임될 KBS 사장의 임기 등에 대한 일정과 관련 법규 체크한 것으로 보임(방송법 47조는 이사의 임기지만 사장도 동법 50조6항에 따라 같은 47조에 의해 임기와 보궐 선임 기간이 정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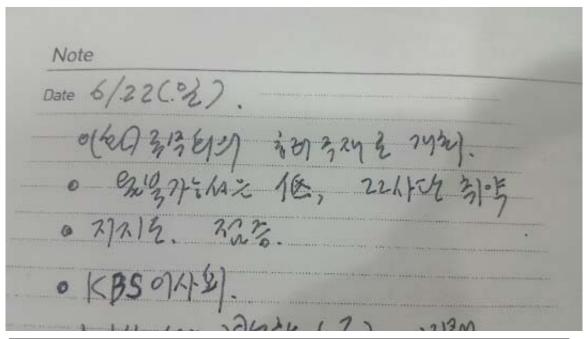
#### ▶ 6.20

V 0 201221CBS でかるかり - 三部を当れてし - 4をおいかか

2012년 KBS 파업사건 - 법원 무죄선거

- 노조강성화 가속
- ==>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에 대한 동향 체크 및 감시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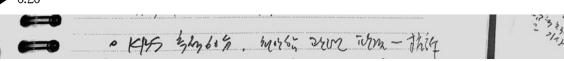
## ▶ 6.22



○ KBS 이사회

===> 6/23일부터 KBS 사장 공모 시작...이것과 관련해 체크한 것으로 보임.

# ▶ 6.26



○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

## => 김기춘 비서실장 워딩을 그대로 적은 메모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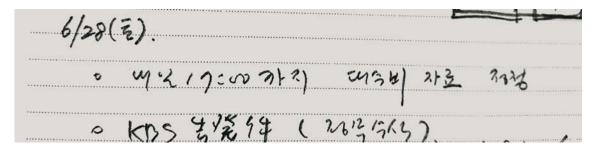
2010년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2014년 6월13일 〈한국방송》(KBS)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7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음.

결국 청와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방통위가 서울고법에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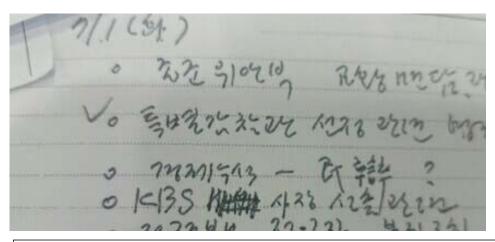
#### ▶ 6.28



# KBS 고발건 (정무수석)

==> 6월3일 KBS기자협회가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길환영 당시 사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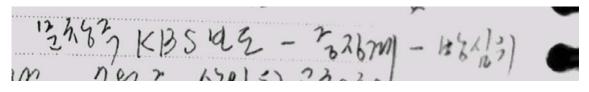
# ▶ 7.1



# KBS 사장 선출 관련

=> KBS 새로운 사장 공모가 6월23일 시작돼 고대영, 강동순, 홍성규 등 총30명이 지원한 채 6월30일 끝났음. 이후 7월2일 이사회가 열렸는데 30명의 후보자 가운데 6명으로 압축됐음. 따라서 6명으로 압축하기 하루 전에 청와대에서 후보 정리와 관련한 대응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7.2



# 문창극 KBS보도 - 중징계 - 방심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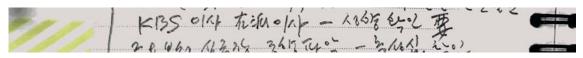
=>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KBS 뉴스 보도와 관련해 전날인 7월1일 방심위 보도교양특별위원회가 경고 등의 중징계 의견을 냈음. 이에 대한 보고 혹은 대응책 논의로 보임.

# 0 KBS 6 9 - 20452 1.

## KBS 6명 - 조대현 7

=> KBS이사회는 7월9일 여의도 KBS에서 사장 공모 면접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와 표결을 거쳐 오후 8시께 표결절차를 논의한 후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1차 투표에서 조 후보자가 재적 과반(6표)을 득표 하면서 그를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음. 이보다 앞선 6일 전에 청와대 수석회의 이 같은 메모는 KBS 사장 선정과 관련한 판세를 미리 읽고 우려하거나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보임.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사태로 KBS 새사장 선임과 관련해 노골적인 개입이 힘든 시기였음.

##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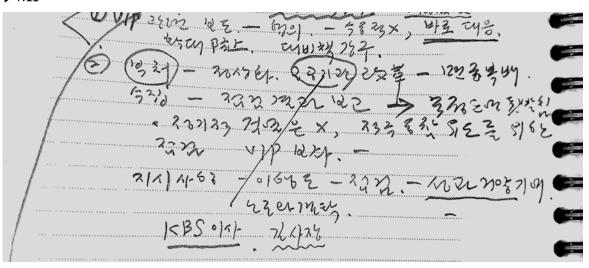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

# => 김기춘 비서실장 워딩을 그대로 적은 메모로 알려짐.

전날인 7월3일 메모에서 판세를 체크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일차적으로 우파 이사 (여당추천 이사)에 대한 성향 확인을 요구하는 지시. 즉 '조대현'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됨.

## ▶7.11



부처 -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 - 면종복배

수집 - 점검 결과 보고 -> 국정 운영 뒷받침

정기적 검열은 X, 적극 동참 유도를 위한 점검 VIP 보좌

지시사항 이행도 점검 성과 ?? 기여

KBS이사. 길사장

=> 이틀 전인 7월9일 여당 추천 이사 2명의 반란(?)으로 '조대현'씨가 사장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이에 대한 메모로 보임...공공기관 가운데 KBS이사들을 대표적인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사람들로 꼽은 것으로

추정. 길사장(길환영)을 해임시키고 '조대현'까지 사장으로 임명제청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추정됨.

#### ▶8.14

KBS. VIP 4355 新莲

# KBS, VIP 행적 보도

=> 전날 KBS 뉴스9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국조특위에 밝힌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메인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관련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11356

# ▶8.28

。17239、KBS 包至(包括3) - 初初至分的1日沙生。 中央日報 - 3七年一號銀。118, 一。16)つかとれ引て

# 방심위, KBS 보도(문창극) - 전체회의에 회부

=> 전날인 8월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KBS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보도' 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음.

#### ▶9.5

の 初ののでの えらいない かられて の 1かりまり、 ろからち 272の (21を) / \*1713cスにたらも2 U1p 51 でとらつ) 222の スリスク、争続。

# 방심위, 문창극 관련 지도

=>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9월4일 KBS 〈뉴스9〉 문창극 보도(6월 11일, 13일)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권고' 처분의 행정지도를 내렸음.

(金) 32/10201/2 (2001/2) 当生 223 + 264/2/2 (2000) では2012 をかかり では201201 では2012 では2012 では2012 では2012 を3のでは2012 を3のでは20

####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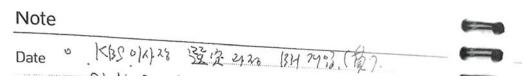
○ 국가 정체성.헌법가치 수호 노력 -> 정책 집행.인사 관리를 통하여 일선행태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심의 관련

# => 김기춘 비서실장 워딩을 그대로 적은 메모로 알려짐.

전날 방심위의 KBS문창극 보도 관련 행정지도를 예로 들며 전사들이 싸우듯이 정권을 위협하는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추정됨.

※〈참고〉 당시 문창극 후보의 문제 발언 동영상이 KBS 뉴스를 통해 나간 뒤 총리 후보자 검증 TF에 속한 한 기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의 검사장급 고위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제보가 왔음. 이후 취재TF팀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연락을 통해 KBS 취재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한 바 있음.





# KBS이사장 선정 과정 BH 개입(?)

=> 김기춘 비서실장 워딩을 그대로 적은 메모로 알려짐.

당시 이길영 이사장이 8월27일 사임하고 이틀 뒤인 29일 방통위가 이인호 씨를 이사장으로 내정함. 그리고 9월2일에 대통령이 이인호 씨를 이사로 임명하고 9월5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됨. 이 메모 전날인 10월14일 야당 문병호 의원이 청와대 압력에 의해 절차까지 위반해 가며 이인호 씨가 KBS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아래는 관련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14001113&md=20141015003108\_BL

괄호 안의 한자는 짐질 부(負) 혹은 바탕 질(質)로 추정되나 확실치는 않음.

※ 이길영 이사장은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먼저 사퇴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최 근 새노조 측에 밝힌 바 있음.

〈끝〉

2016년 1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